

15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16.86	↑ 코스닥	685.42
	(-2.00)		(+3.86)
↑ 금리 (미국 9년)	2.941	↓ 환율 (원/달러)	1399.50
	(+0.012)		(-5.60)

## 작업시간 75% 절감... 전 산업계 혁신 견인

### 지난달 출생아수 25개월만에 최다

#### AI가 그리는 초연결 미래

##### 〈上〉 AI 선택은 필수

글로벌 AI 시장규모 1840억달러의 의료·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국내기업 AI도입 수준 최상위권 상위그룹 평균 10배 수익률 기록

눈부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세계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모습을 드러낸 챗 GPT와 생성형 AI의 기술 빅뱅은 3여 년간 전세계 산업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기업 의사결정권자들도 AI에 관한 관심은 여느때 보다도 높아졌다. 모든 업계와 직무 영역에서 AI가 도입돼 활발하게 실제 업무에 활용되면서 AI의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7일 스타티스타(Statist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AI 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시장 연간성장률(CAGR 2024-2030)은 28.46%에 달해 오는 2030년에는 826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시장전망에 포함된 시장은 B2B, B2G, B2C 등 전체 시장이다.

스타티스타 측은 "의료, 금융, 소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AI 기술을 통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성

을 개선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노력함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AI 도입은 기업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더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업 내 AI를 도입한 후 성과를 거둔 사례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다. IDC 조사 결과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2023년 55%에서 올해 75%로 크게 늘었다.

AI 도입 기업들은 1달러 당 평균 3.7배의 투자 수익률을 얻고 있으며 상위 그룹은 평균 10.3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도입 수준은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디지털 리얼티가 전세계 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응답 기업의 66%가 "자사의 AI 도입 수준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46%의 기업이 이미 학습한 AI 모델을 배포해 수익 창출을 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AI 도입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단순한 업무기록부터 PPT 제작, 방대한 자료 탐색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넘나든다.

삼성SDS의 기업용 AI 서비스 '팩브릭스(FabriX)'와 '브리티코파일럿(Brity Copilot)'은 1년 사이 약 100여 개의 기업이 도입해 15만 명 이상이 활용하는 중이다. 사내 임직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회의록을 작성하는 시간은 75% 이상, 매일 작성시 내용 요약 및 초안 작성에 걸리던 시간은 66% 이상 절감됐다.



**APEC 의사봉 전달받는 윤 대통령** 한국은 차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한다. 2026년 의장국은 중국으로 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2세션 '리트리트'를 마친 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페루 전통 지휘봉인 '바라요크(varayok)'를 건네받으며 의장직을 인계받았다. 〈관련기사 2·6면〉 /뉴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한국IBM과 기상 예측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롯데홈쇼핑은 한국IBM이 AI를 반으로 정교하게 분석한 기상 예측 정보를 전달 받아 상품 기획, 편성,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한편, 기상 상황과 상품

수요 변동 관계를 도출해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AI 편성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날씨는 TV홈쇼핑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 스마트팩토리는 AI 도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지난달 태어난 국내 신생아 수가 최근 25개월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미뤄둔 혼인이 엔데믹화 전환 이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등한 혼인 건수에 비례해 출생 건수도 당분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일시적 기저효과가 종료되기 전에는, 저출산 극복 여부에 대한 정부 등의 판단이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 집계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2126명으로, 올해 들어 월 기준 가장 많았다. 이는 또 지난 2022년 9월 수치인 2만2437명 이후 2년1개월 새 최다 건수이다.

출생아수는 2022년 12월 1만8511명에 그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를 보인 바 있다. 이후 2023년 들어서도 출산은 부진했다. 지난해 4월(1만8287명), 9월(1만7926명), 12월(1만6996명) 등 역사상 최소를 3차례나 갈아치웠다. 또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출생아 수가 2만 선을 넘긴 달은 1월, 2월, 3월, 5월, 10월 등 5차례뿐이다.

올해는 저출산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월 2만1407명으로 시작해, 2월과 3월 1만9000명대, 4월(2만87명)과 5월(2만254명)에 2만 선을 웃돌았다. 이후 6월(1만7782명)에 주춤했으나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10월에 2만2000명대를 기록했다.

10월 출생아 수 2만2126명 혼인건수 늘어 저출산 개선 기대 30대 초반 인구 증가도 긍정적

통계청 등이 그간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혼인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8월만 봐도 혼인 건수가 1만7527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0%(2917건) 늘어나는 등 향후 출생 건수도 일정 기간 회복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7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30% 넘게 늘면서 2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출생아 수를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5년 전과 비교하면 저출산은 여전히 현존한다. 지난 2019년 12개월간 출생 수는 최소 2만2953명, 최다 2만8155명에 달했다. 2018년에는 최소 2만4565명~최다 3만615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세 집 중 한 집 '1인가구'... 편하지만 '경제·외로움' 걱정

여가생활 만족도 큰 폭 증가 하루 평균 2끼도 먹지 않아

우리나라 세 집 중 한 곳은 1인가구로 나타났다. 저출생과 고령화, 만혼 등이 맞물린 결과다. 여가생활 등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경제적 안정과 외로움, 건강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17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가운데 71.2%는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생활에서 느끼는 3대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22.8%)', '외로움(18.1%)', '건강(17.0%)'이었으며, 이 중 '경제적 안

정'에 대한 우려가 이전 대비 커졌다.

보고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늘고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일상 생활과 금융 생활의 변화를 분석했다. 이번에는 서울 경기 및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25~5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1인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전체 한국 가구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였던 4인 이상 가구(370만 가구)의 두 배 수준이다. 오는 2050년에는 972만 가구로 두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1인가구 대부분은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공간·환경'에 만족하는 1인가구가 77.8%로 가장 많았고 '여가생활'(75.3%) '인간관계'(59.5%), '경제력'(48.4%)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일상생활과 여행 등이 자유로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인가구 응답자 중 35.1%가 2023년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올해 해외여행 계획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도 52%에 달했다. 예상경비는

'100만~200만원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다.

1인가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22.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외로움'(18.1%), '건강'(17.0%)의 순이었다. 2022년에는 외로움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고통에 따른 생활비 부담으로 경제적 안정이 최대 걱정거리가 됐다.

식생활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하루 평균 2끼(1.8끼)도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2.2끼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혼밥 비율은 67.8%로 2020년 65.2% 대비 2.6%포인트(p) 높아졌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추경호, 與단일대오 조용한 조율... 친한·친윤 물밑 중재 주목 /사진 뉴스스  
▲ 민주당, 내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 2차 비상행동... 대여공세 고배

▲ 한동훈, 야이재명 1심 반발에 "판사 겁박 강력 대응... 제가 앞장서겠다"  
▲ 여, 야 장외 집회에 "사법부 겁박... 주말 도심 둘러줘야"



▲ 조은희 "딤페이커 성범죄 근절 위한 '위장수사 2법' 통과" /사진 뉴스스  
▲ 북, 열흘 연속 GPS 전파 교란... 접경지 무인기 대비 훈련 추정